

##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원청과 직접 교섭 생취

노동부 직접 고용 명령 등 중재안 합의... “불법파견 비호·방조한 검찰 책임 물어야”



금속노조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정규직 전환을 위해 원청 현대·기아차 자본과 직접 교섭한다. 노동부는 원청에 직접 고용 명령을 내린다. 현대·기아차 비지회는 노동부와 이 같은 내용의 중재안에 합의하고 농성18일, 단식 16일째인 10월 7일 농성을 해제했다.

노조 현대·기아차 비지회는 “법적 이해당사자와 직접 이해당사자인 현대·기아차 사측과 정규직 지부, 비정규직지회 등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하되, 필요 시 사안에 따라 현대·기아차 사측과 비정규직지회 간 직접 교섭을 실시한다” 라고 합의했다. 교섭은 가능한 일주일 내에 시작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사항과 법원 판결에 따른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사를 토대로 원청인 현대·기아차 자본에 ‘직접 고용 명령’ 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10월

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기아차 비정규직-노동부 불법 파견 혐의 타결 입장’ 을 발표했다. 지회는 “14년이라는 오랜 세월 끝에 현대·기아차 원청과 직접 교섭을 성사했다” 라며 “불법 파견 문제는 이제 바른길로 돌아가야 한다” 라고 밝혔다.

지회들은 “현대·기아차는 대법원 판결 이후, 선별채용과 근속 불인정, 강제 전직 등 특별합의를 통해 불법 파견을 감춰 왔다” 라고 규탄했다. 지회는 “현대·기아차 원청은 직접 교섭을 통해 잘못된 과거를 바로 잡아야 한다” 라고 요구했다.

지회들은 문재인 정부와 검찰, 사법부를 향해 “불법 파견이라는 판결을 받고 계속 사내하청을 사용하는 정몽구와 정의선 등 모든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파견법과 기간제법을 폐기하라” 라고 촉구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

해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 투쟁해 직접 교섭을 생취했다. 우리 민주노조의 성과다. 금속노조는 올해 불법 파견 끝내서 함께 살자는 구호를 실천하겠다” 라고 축하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현대·기아차 자본은 아직 ‘2013년 특별채용 합의로 직접 고용에 관해 재론할 여지가 없다’ 라는 태도를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직접 교섭 중재안 이행에 대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 라고 촉구했다.

김수억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14년 만에 노동부 중재를 통해 현대·기아차 원청이 실제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교섭에 나오기로 했다. 노동부는 직접 고용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노동부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계속 지켜보겠다” 라고 말했다. 김수억 지회장은 “그동안 불법 파견 비호를 넘어 방조해온 검찰에 공동정범 책임을 묻겠다” 라고 밝혔다.

# “현대차그룹 노무관리 지배개입 가이드라인 박살 내야”

5일, 현대비엔지스틸지회 파업...사측, 라인합리화 핑계 공정 폐쇄·교섭위원 복귀 명령

금속노조 경남지부 현대비엔지스틸지회가 10월 5일 현대비엔지스틸의 노조 무력화에 맞서 네 시간 부분 파업을 벌이고 출정식을 열었다. 현대비엔지스틸은 현대자동차그룹의 눈치를 보며 라인 합리화를 이유로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현대비엔지스틸지회는 ▲정규직 일자리 줄어드는 생산 합리화 철회 ▲단체협약상 신규채용 즉각 시행 ▲교대 수당 신설 ▲공정분배 실천 등을 내걸고 투쟁하고 있다.

현대비엔지스틸은 지난해 대비 영업이익률이 71.9%나 올랐지만, 지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2018년 임단협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사측은 CRM, 2BA 등 열처리 공정을 라인 합리화를 핑계로 없앴다. 사측은 두 공정 소속 조합원들을 정년 퇴직자 자리로 전환 배치하고,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있다.



현대비엔지스틸은 지회와 세 차례나 약속한 ‘라인 외주화를 하지 않는다’ 라는 고용안정협약서를 무시하고 라인을 폐쇄해 비정규직 확대와 신규채용 중단을 노리고 있다. 사측은 100%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는 광주 엔진블록코어 공장을 인수하고, 내년 6월 완공하는 당진 엔진블록코어 2공장의 현장인력을 100%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계획이다. 사측은 지난해 크레인작업 공정 외주화를 시도해 지회의 반발을 불렀다.

지회는 사측이 엄청난 영업이익에도 공정분배를 하지 않는 이유로 ‘현대자동차

그룹 본사 눈치 보기’ 를 지적했다. 장기성 지회장은 “현대비엔지스틸 올해 실적은 국내 철강업계 1위, 창원공단 상장사 중 으뜸이다. 그룹 안에서도 최고의 실적이다”라며 “회사는 2015년 실적이 좋지 않자 임금동결을 요구하고, 이익을 많이 내면 돌려주겠다고 했다. 정작 이익이 나니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장기성 지회장은 “비엔지스틸에 현대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자동차, 제철의 비정규직 조합원보다 낮은 임금을 줬다. 노동 적폐인 현대차그룹의 계열사 노무관리 지배개입과 가이드라인, 서열화를 박살 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지욱 노조 경남지부장은 “좋은 일자리 확대는 정부 정책일 뿐 아니라 사회의 요구이다. 현대비엔지스틸은 공정 없애기를 중단하고 신규채용을 늘려야 한다. 더 불어 정년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현대차그룹 가이드라인 폐기 않으면 계속 파업”

그룹 본사 현대제철 지배개입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가이드라인, 모든 계열사와 하청업체 공통”

금속노조가 10월 4일 충남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C지구 정문 앞에서 ‘현대차그룹 본사의 현대제철 당진 노사관계 지배개입 중단과 양재동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차 임단협을 기준으로 현대제철 90% 현대로템과 다이모스 80% 나머지 계열사는 70% 수준으로 합의하라는 희한한 가이드라인을 윤여철 부회장 주도로 관철해왔다.

김초규 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이 계열사 개별 노사관계에 그룹 차원에

서 지배개입을 하고 있다. 그럴 거면 금속노조 요구대로 산별교섭에 응하라. 온갖 핑계로 산별교섭은 외면하면서 여러 사업장에서 지배개입을 고집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정원영 노조 충남지부장은 “양재동과 현대제철 대표이사가 결심해야 한다. 노사대치 상황이 지속하면 노조는 더 강력한 투쟁을 펼치고, 윤여철을 중심으로 현대차그룹이 벌인 노조탄압 사실을 모두 밝힐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는 현대차그룹이 ‘양재동 가이드라인’이라는 노무 전략을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 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연 지회장은 “현대제철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년 늘고 있다. 노동자 실질 임금은 가이드라인 때문에 매년 줄었다”라며 “이번 1차 총파업으로 가이드라인을 폐기하지 못하면 2차, 3차 파업을 벌일 것이다”라고 선포했다.